



■ 2018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대입전형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6.11.28.)

2018학년도 15개 주요 대학들의 대입전형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 ▲ 2018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대입전형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실시함.
- ▲ 분석 기준은 △특기자전형의 모집 비율 감소, △논술전형의 모집 비율 감소,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비율 감소 등의 여부임.
- ▲ 분석 결과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다수가 입시 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 전형을 운영하고 있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 대입 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분석 결과가 2018학년도 모집요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 또한 대입전형 계획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2016년 419억 지원)의 핵심지표이므로 정부는 2017년 기여대학 선정 시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11월 25일(수, 오전 11시)에 연세대 정문에서 갖습니다. 주요 대학 중 다수가 입시 부담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전형을 운영해 여전히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전국 198개 대학교의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대학도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7학년도와 비교하여 △특기자 전형의 감소, △논술 전형의 감소, △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완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적용 비율 등의 분석기준으로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기준은 2013년 9월 교육부가 발표했던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제시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간소화 방안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은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이 대입전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주요 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대입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이끌기 위해 정부와 대학의 노력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6. 11.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

■ 행사명 : 2018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대입전형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 11. 30.(수) 오전 11시

■ 장소 : 연세대 정문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다음의 기준으로 분석

-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 변화 및 전형 요소 분석
- 논술 전형 모집인원 및 수시 비율 변화
-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완화 여부
- 수시모집에서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전형 비율